

## 목포·순천대 통합의대 결단으로 30년 동서갈등 풀자

김영록 지사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15일까지 통합 합의해달라”  
“정부 수용성 높은 통합의대가 최선”... 양 대학 총장에 결단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및 대학병원 신설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공모 마감을 앞두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을 통해 30년 넘는 숙원사업인 국립 의대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그동안 잇박자를 보여온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11일 우선 출범해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지역 단일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수십년 간 계속되고 있는 '동·서부권 홀대론', '소지역주의'로 인한 지역 간 경쟁·갈등 구도를 끝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열린 실·국 정책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언급하며 “양 대학 통합은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확실히 담보하면서 대학 미래 발전, 전남 도민 전체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라며 “양 대학 총장님께서는 도민만을 생각하고 15일까지 마지막 통 큰 결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가 15일까지 합의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는 조속한 단일안으로 의대 신설 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안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역 사회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해석이다.

“2026학년도 정원 관련 실질적 협의가 빨라질 수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자칫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여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인식을 반영했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협의체가 논의할 민감한 국내 의료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역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일일이 수용, 논의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적 여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또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공모 추천으로 가는 방안은 통합 의대에 비해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며 “이제 정상에 거의 이르렀는데 다시 산을 내려갈 수 없다”고 언급하며 양 대학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립 의대 유치를 위해 지역에서 분출되는 의견

을 단일안으로 마련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정부의 1도(道) 1 국립대 정책에 부합해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수십년 간 이어져온 ‘소지역주의’를 끊어내고 상생 발전을 이룰 통합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통합 의대로 국립 의대를 유치한 뒤 두 대학이 캠퍼스별로 나눠 부속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도 가능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협력해 협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목포·순천대 총장은 더이상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지역 유치’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전남도청 이전과 맞물려 ‘동부권 홀대론’을 잠재우기 위한 동부지역본부 확충, 순천·목포로 나눠 펼쳐졌던 ‘약대 유치’ 경쟁, 여수박람회 개최로 이뤄진 SOC 확충,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SOC 신(新)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마다 끊이질 않았던 동·서부권으로 나뉜 지역 간 갈등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경선(민주·목포 5) 전남도의원도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30년 넘게 요구해온 국립 의대 유치는 전남 도민 전체의 숙원 사업”이라며 “단일화된 안으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양 대학 총장은 통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알립니다

### 신 해양 관광 시대 전남 관광 개발 포럼

14일 현대 바이 라한 목포 호텔

광주일보가 천혜의 자연, 산해진미, 맛과 정을 간직한 전라남도의 미래 관광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합니다. 전남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세계 속에 빛나게 할 관광 관련 아이디어와 정책, 사업 등이 논의될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지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신 해양 관광시대를 선도하다 - 전남의 비전
- 일시: 2024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현대 바이 라한 목포 호텔
- 주최: 전라남도
- 주관: 광주일보
- 기조 발제: 송재호 전 대통령 자문위원장 ‘해양문화관광의 세계적 추세와 인사이트’

光州日報社

### 담양 관방천의 눈부신 가을 풍경



광주·전남의 일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올라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인 12일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관방천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코스피 3개월만에 다시 2500선 아래로

환율 1403.5원 2년만에 최고치

외국인들의 ‘팔자’ 행렬에 삼성전자가 4년4개월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는 등 코스피가 12일 2% 가까이 내려 지난 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500선을 내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09포인트(1.94%) 내린 2482.57에 장을 마쳤다. 지수가 증가 기준 25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8월 5일(2441.55)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미국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가 8.77% 급락한 바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3.72포인트(0.15%) 내린 2,527.94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06억원, 1095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3332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장보다 8.8원 오른 1,403.5원을 나타내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여파에 따른 달러 강세와 간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하락에 따른 반도체주 약세에 하방 압력을 받는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수혜주’는 업종별 차별화 양상을 나타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심화,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 더해 간밤 미국 증시 내 주요 반도체주 급락에 국내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내렸다”며 “또한 수출 및 이익 추정 하향이 지속되면서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3.64%)가 5만3000원까지 내리며 4년 4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3.53%)는 7거래일 만에 ‘18만닉스’로 주저앉았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1.99%), 셀트리온(-4.71%), 현대차(-1.90%), 기아(-2.85%) 등이 내렸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당신의 다음 클래스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여유로운 삶을 향해

The new EQA & EQB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암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종 초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5(도상: 5.4, 고속도로: 4.6) 1회 충전거리(km): 367, 공차중량(kg): 1985, 배터리 용량(kWh): 65.9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1(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302, 공차중량(kg): 2135, 배터리 용량(kWh): 65.9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